

2007년 10월 15일 월요일 매일경제

## 뉴욕 현지서 韓人인재 스카우트전

【뉴욕 위정환특파원】 미국에서 열린 한 글로벌 코리아 취업박람회에 50여 개 글로벌 기업과 1500여 명의 취업희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.

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코리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40여 개 미국기업들이 참가해 코리아 인재 확보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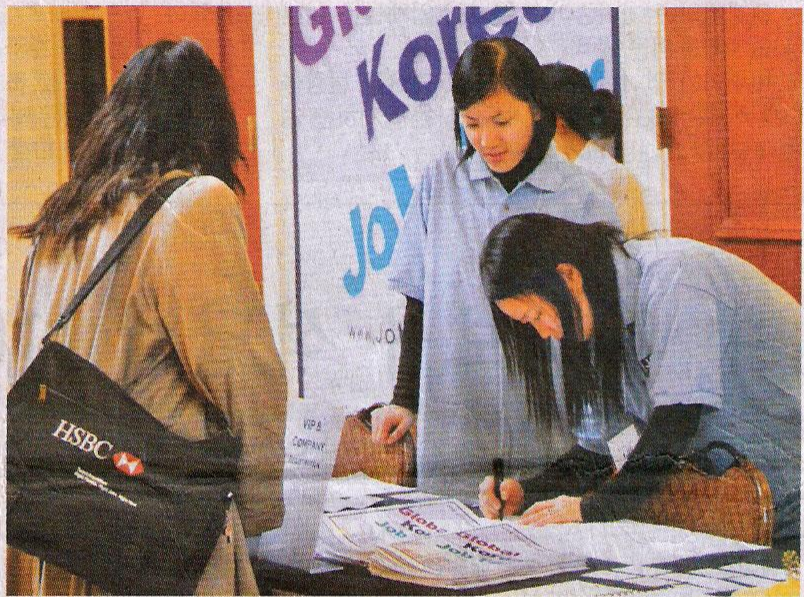
제일인재기획 미주법인인 지난 12일(현지시간) 뉴욕 맨해튼 인근인 뉴저지 티넥에서 개최한 '2007 글로벌 코리아 채용박람회'에 50여 개 기업과 1500여 명의 취업 희망자들이 몰렸다고 밝혔다.

이날 취업박람회는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한인 인재에게 한국기업은 물론 미국기업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.

한국에서는 미래에셋과 웅진, 동부, 삼양사, 전자통신연구원 등 10개 업체와 기관들이 참여해 해외 한인 인재 확보에 나섰다.

미국기업으로는 HSBC와 PNC뱅크, 뉴욕라이프, 스테이트팜, 푸르덴셜, 로열소버린전자, 제이원전자, 엔터프라이즈 렌터카, 뉴욕시경, 미육군 등 4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미국 기업들이 한인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줬다.

이번 박람회에는 한인 1.5세와 2



세는 물론 한국의 석·박사급 유학생들이 대거 참가해 현장 인터뷰 등을 가졌으며 이 가운데 100여 명이 현장에서 채용이 결정됐다.

취업 희망 참가자들은 캘리포니아, 애리조나, 미시간, 일리노이, 하와이 등 미 전역에서 몰려들었으며 참가자 중 유학생이 60%에 달했고 동포 2세와 1.5세는 40%를 차지했다.

김성민 제일인재기획 미주법인 사장은 "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미국과 다국적 대형회사들이 한국인 인재에

관심을 높이고 있다"면서 "이번 취업박람회가 미 주류 사회와 기업들에 글로벌 한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"고 말했다.

제일인재기획 미주법인 잡월드 USA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현장에서 채용이 결정된 100여 명을 포함해 400여 명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내년에는 미국 내 최대 한인밀집지역인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상하이에서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